

# 강원 지역의 경제 현황과 향후 과제

김인춘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사회학(社會博)

## 지역경제의 현황

강원 지역은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 과정에서 가장 소외되어 왔으며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다. 육성된 기간 산업도 없으며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투자도 거의 없었다. 강원 지역은 여타 시·도와 경제력에서 매우 뒤쳐져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과 금융 등 제조업 지원 서비스 산업과 인적·물적 인프라도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강원도의 낙후와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역간 균형 발전과 주민 복지의 증진을 위해 중앙 및 지방에서의 적극적인 발전 전략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 ○ 강원 지역 경제 및 소득 수준

지역간 경제 수준의 불균형은 각 지역의 부존 자원, 자연 환경, 입지 조건 등의 차이로 불

가피한 면이 있으나 강원 지역의 경제는 지난 30년간 국민 경제의 총량적 성장 전략으로 특정 지역에 경제력이 집중된 결과 자연 조건을 훨씬 상회하는 지역적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에 정부는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1970년대 중반 이후 대도시 인구 집중 억제, 공업 재배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광역권 내에서의 인구 및 산업 재배치 효과에 그치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그 결과 강원 지역의 산업 구조는 아직도 전근대성을 면치 못하고 지역 산업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지역경제 성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제조업은 극히 미비한 수

<표 1> 지역 총생산 및 1인당 지역 총생산  
비교(1992년 현재)

구분	지역총생산 <sup>1)</sup>	1인당 지역총생산 <sup>2)</sup>
전국	239,960(100)	5,447(100)
강원	6,689(2.8)	4,444(81.6)

자료: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4.

주: 1) 단위는 10억 원, ( )안은 전체에 대한 구성비(%).

2) 단위는 천 원, ( )안은 전국 평균을 100으로 할 때의 비율.

준에 머무르고 있다.

위 표에서 보듯이 지역 경제력을 나타내는 강원 지역의 지역 총생산은 전국의 2.8%에 지나지 않고 있다. 강원 지역의 1인당 지역 총생산도 전국 평균을 100으로 하였을 때 81%로 훨씬 평균 이하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 면적이 전체 면적의 17%, 지역 인구가 전체 인구의 3.4%인 점을 감안하면 낙후된 지역경제의 실상을 잘 알 수 있다.

### 지역경제의 문제점

#### ○ 많은 지역적 개발 제약 요인

강원 지역은 남북 분단으로 인한 접적 지역이 많고 태백산맥의 산악 지역으로 개발에 애로가 타 지역에 비해 많다. 그리하여 국토 이용 계획상 산림 보존 지역, 수자원 보호 지역, 자연 환경 보존 지역 등 개발 억제 지역이 도 전체 면적의 78.5%에 이를 뿐만 아니라 국민 여가 지대로써 자연공원법, 관광진흥법, 문화재관리법에 의한 자연 및 문화재 보호 구역이 도 전체 면적의 7.6%를 점유하고 있다. 개발 제한 구역과 1차 산업의 주된 구성으로 2차 산업의 비중이 매우 낮아 공업 집적도가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고용 창출 및 취업 기회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젊은 세대의 탈지역화가 심화되어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은 현실이다.

강원도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3 도시의 勢가 비슷하고 도시 기능이 빈약한데다 도시간의 핵 연결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하여 동·서간의 정서적 격차가 내재하고 있어 지역 발전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6.25 이후의 수복 지구가 많아 실향민이 많고 군인과 광원 등 유동 인구가 적지 않아 지역 정주 의식이 저조한 편이다.

#### ○ 인적·물적 자원의 취약

강원도 지역은 전국민의 휴양처라는 인식이 매우 넓게 퍼져 있어 외부인은 물론 내부 지역민까지 발전을 위한 인프라의 개발을 소홀히 하여 왔다. 제대로 발전된 공과대학이 없으며 의과대학은 이제야 처음으로 설립되게 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지역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었고 자체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기반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인적 자원의 부족은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 발전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물적 자원의 측면을 보면 더욱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항만이나 비행장,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이 타 지역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인프라의 부족은 원만한 공단이나 공업 지역 하나 개발시키지 못하는 원인이자 결과가 되고 있다.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 지역 개발 전략

#### ○ 지역의 개발 잠재력

강원 지역은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남북 교류 및 북방 교역의 증대, 그리고 국내외 지역과의 접근성이 개선되게 되면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변화할 수 있다. 북방 교역의 증대와 두만강 삼각 지대(러시아, 북한, 중국)의 개발이 가능해지면 북방 지역과 근거리에 입지한 강원도 동해안의 북방 교역 전진 기지화 전망이 양호한 것이다. 남북 교류 및 경제 협력 여건의 성숙으로 남북으로 갈라진 강원도가 연결돼 국토 공간의 일체성이 회복되고 「금강산-설악산」의 공동 개발로 강원 지역 발전의 계기가 성숙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속 전철, 공항 등 교통 시설의 획기적 개선으로 지형적 제약성이 개선되면 산지 등 한계 자원(marginal resource)의 가치가 높아져 개발 잠재력이 매우 커질 것이다. 특히 아름다운 지형적 여건은 여가 활동의 증대와 실버산업의 발달로 천혜의 관광 자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한계 자원의 가치는 그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구조가 경량 소량의 첨단화·고도화되면서 산업 입지가 제약되었던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라운드, 국제적 환경 규제 강화와 국민 무공해 농축산물의 선호로 저공해 지역인 강원도내 산업의 활성화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지역적 특성상 강원도의 지역 개발 전략은 무엇보다 개발과 보존 지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존 지역에 대한 철저 관리를 확립해야 하며 관광 자원은 인근 母도시와 연결하여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특성별 상호 보완적 연계 관광을 개발하고 제 3섹터에 의한 관광 개발로 개발 효과가 지역의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의 제반 조건을 그 지역의 행정적 위치와 기능, 부존 자원이나 인적 자원에 알맞게 개선하여 산업을 입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3 핵간의 연결 체계를 우선적인 지역 개발 정책으로 삼고 그 지역의 형평성이나 사회의 능률성이라는 지역 입지를 선정하고 각 지역의 입지 조건에 맞는 산업화를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 개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동서고속 전철과 양양국제공항의 건설이 확정되어 강원 지역 개발의 기반이 확충되고 있으나 이것은 지역 개발 이익보다 전국토의 개발에 기반한 성격이 더 강하다. 그러므로 지역내 간선 교통 체계의 개편과 도로 시설의 양적, 질적 개선이 추진되어야 하고 산업 기반 구축과 산업의 첨단화, 특성화로 인구의 정착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기타 지역 특화 산업의 육성과 농림수산업 생산 기반의 구축, 탄광 지역에 대한 대체 산업의 육성으로 신산업 지대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정부 차원의 낙후 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 향후 과제

#### ○ 중앙정부의 역할 제고

지방화가 지역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경제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적어도 모든 면에서 낙후된 강원도의 현재와 같은 지역적 조건으로는 실현성이 불가능해 보인다. 재정 자립도가 38%에 불과하고 예금액이 전국의 1.7%에 지나지 않는 현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호남 지역도 유사한 상황에 있으나 지역 개발을 위한 공단, 지역 인프라 등이 이미 상당히 진척되고 있어 강원 지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정부가 강원 지역의 사양화된 석탄 산업 지역을 개발 촉진 지구로 지정하여 관광 산업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기업 및 자본의 유치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 단체의 자주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첨단 산업이나 관광 산업 그리고 농수산

업 등 현대의 모든 산업은 새로운 기술과 경영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자본과 기업화된 조직이 필수적이다. 지방화 시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개방화, 국제화가 진전되어야 한다. 폐쇄적인 자세로는 다양화, 다원화의 지방화 시대에 적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역 발전의 기회도 잃기 쉽기 때문이다. 인적·물적 자원의 역외 유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개방적, 국제적 사고 방식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지방의 개방화와 국제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외 협력 관계의 구축과 대외관련 기능 및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 ○ 특화 산업의 개발

지방화 시대에는 지역의 특화된 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의 발전을 유도한다는 의미로 효과와 효율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강원도는 수려한 자연 자원을 갖고 있으므로 관광 휴양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북방관련 업종도 매우 유망하고 수도권 인접 지역에서의 무공해 중소 규모 첨단 기술 산업의 육성도 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러한 특화 산업의 개발을 위해 자치단체와 민간 기업 공동의 제 3 섹터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관광 및 휴양지 개발, 가공 공장, 농산물 도매 시장, 공원 묘지, 특산품 등이 유망한 민·관 합동 사업으로 지목되고 있다.♣